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7
2016

Vol. 255

낙산해수욕장에서 만난 파란바다, 호젓한 휴가

양양소식
Vol. 255

CONTENTS

양양군 서면 해담마을 수륙양용차 체험

〈사진제공 :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 김양식〉

희망양양

04 **테마스토리** 다가오는 9월 1일은 양양 정명 600년이 되는 날
06 **양양사람** 동호리 마을지킴이 김복열 이장
08 **양양 600년** ⑦ 양양문화제

의기양양

10 **이달의 군정소식**
16 **양양의 이모저모**
18 **의정소식** 제216회 정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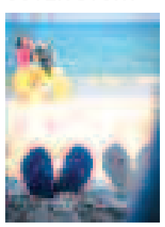
오감양양

20 **맛 칼럼** 은어
21 **장보러가자니** 양양시장 EQ체험
22 **오랍드리** 하늘나르기와 숲속기차

열린양양

24 **정보꾸러미**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정보
25 **일자리정보** 7월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문화제

COVER STORY



낙산해수욕장에서 만난
파란바다, 호젓한 휴가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 255호

| **발행일** 2016년 7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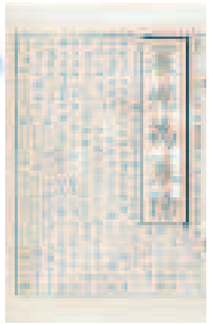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yangyangesm@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다가오는 9월 1일은 양양 정명(定名) 600년이 되는 날

새로운 천 년 비상 준비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2016년은 양양군이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불린 지 60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16년인 1416년 음력 8월 10일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으로 개칭하여,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다가오는 9월 1일이 된다.
양양 정명(定名) 600년을 맞은 양양군은 올해를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로 했다.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을 찾아가 보았다.



태종실록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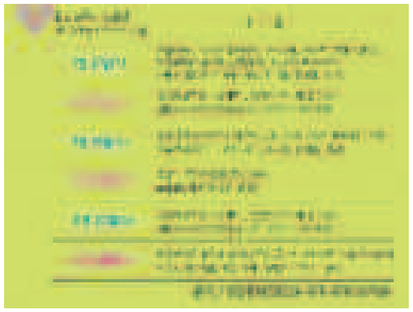
하늘이 돕는 고장 양양, 유구한 역사성에 자부심

윤여준 원장은 제일 먼저 양양이라는 지명에 모방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고 말문을 연다.
"앞의 양(襄)은 오르다와 돕다, 뒤의 양(陽)은 태양과 하늘을 뜻하므로, 한자 뜻 그대로 해오름의 고장이요 하늘이 돕는 고장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앞과 뒤의 음이 똑같은 한글 지명은 우리나라에 양양이 유일하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선시대 태조의 외향이라 도호부가 된 이래 600년의 역사 속에서 속초시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양양이라는 지명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켜 오늘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

양양 600년을 기념해 9월 1일 ~ 9월 3일 양양문화제 개최, 다채로운 행사 진행

양양군은 정명 60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군민들에게 양양 정명 600주년이 됨을 홍보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몇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해 왔다. 양양문화원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양양 정명 600주년의 역점은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을 함양해 주민화합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역사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했다. 현재 양양의 역사와 설화 등을 만화로 엮은「양양 600년의 역사와 설화」를 초 · 중등학생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홍보 영상물 제작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단오 즈음에 개최했던 양양문화제를 9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양양 정명 6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전국한시백일장과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양양예총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행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군청 앞에 있는 관아 터를 복원해 그 자리에서 선포식을 하고, 양양의 옛 사진을 공모하여 시상 및 입상작 전시와 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양양 600년 역사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양양 600년의 역사와 설화〉 만화책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앞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양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많은 불교 유산이 남아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세조가 개최한 농가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동구리와 양양 죽도의 해풍 맞은 대나무로 만든 대금으로 연주를 잘 한 허억봉과 같은 예술인이 배출된 고장이기도 하다.
윤여준 원장은 3 · 1 만세운동 때 천안을 제외하고 가장 강렬하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한 곳이 양양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양양 군민들은 의지가 강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과 함께 근면하며 소박한 기질도 갖고 있다고 평했다.
윤 원장은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양양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지난 600년이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 양양 발전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뿌리 깊은 역사성에 바탕을 둔 양양은 세계로 무한히 뻗어갈 것을 확신한다.

“동호해변에서 더위도 잊고, 추억도 만드세요~”

동호리 마을지킴이 김복열 이장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7월 8일 양양군의 크고 작은 해변들은 일제히 개장해 8월 21일까지 관광객을 맞게 된다. 그 중에서도 깨끗한 백사장과 긴 해안선, 푸른 송림을 자랑하는 동호해변(손양면 동호리)은 다시 찾고 싶은 해변으로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곳이다. 1년 365일 마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복열(54) 이장은 피서철이면 해변 운영에 전력을 다하느라 더욱 분주하다.

청년회장에서 이장까지 마을을 위해 솔선수범

김복열 이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동호리를 위해 이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마을 청년회를 처음으로 조직해 청년회장을 8년간 역임하며 진행했던 마을의 풀베기 작업, 쓰레기 청소, 제설작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대장과 소방대 대원을 도맡아 온 한 마디로 마을 일에 잔뼈가 굵은 이장이다.

농사와 건축 일을 하던 김 이장은 2004년 연말에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그때 신경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가 왔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 차례의 수술과 지독한 재활훈련 끝에 5년 만에 불굴의 의지로 다시 걷게 되었다.

이런 강인한 의지는 마을 발전을 위해 해변의 군 해안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동해안에서 최초로 주차비를 받지 않는 해변을 만드는 등의 획기적인 일들을 실행에 옮긴 원동력이 되었다.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소통하는 이장

김 이장이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던 삶을 산 것에서 기인한다. 어머니는 병환으로 누워계신 아버지를 대신해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근근이 꾸려나갔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집 저집 다니며 일을 하다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먹고살기 위해 막노동부터 건축 관련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그러다 제대로 된 기술의 필요성을 깨달아 미장과 조적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남을 도울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독거노인과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사는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김복열 이장은 동호해변운영회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해 수익금을 정확히 분배한다. 또, 수익금의 일정액만 마을에 내놓고 나머지는 모두 해변의 시설물 확충을 위해 재투자를 하고 있다. 운영회는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감자를 구매해 농가소득을 꾀하는 한편 구매한 감자는 야영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료로 10알 정도씩 선물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단된 지 18년 만인 2000년에 재등장한 동호해변만의 이색체험인 멸치 후리기체험은 당시 김 이장이 이끌던 청년회가 적극 협조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작년에는 멸치후리기 민속단을 구성,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오는 10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 대표로 출전을 앞두고 있어 연습중이다.

이같이 주민들이 합심해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저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김 이장은 양양군에서 마을 회의를 가장 많이 하는 마을이 바로 동호리일 거라며 마을공동체 운영에는 대화를 통한 소통이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동호리 마을 발전에서 더 나아가 양양군 발전을 꿈꾼다.

김 이장은 마을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면 누구나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받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 포토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야영장을 재정비 하면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득사업으로 재료만 대주고 직접 만드는 음식체험인 ‘창의아이디어사업’과 ‘권역별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구상 중이다. 또, 앞으로 어촌마을과 내륙 쪽 마을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다. 이제 마을 하나만의 발전으로는 양양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양양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김 이장의 꿈이다.

오로지 마을에, 마을을 위한, 마을에 의한 생각과 실천으로 25시간을 살고 있는 김복열 이장은 동호리와 함께 푸른 꿈을 꾸며 오늘도 하루를 맞는다.

〈사진제공 : 양양군 SNS 홍보기자 안영국〉

양양 600년 | ⑦ 양양문화제

군민 화합의 대축제, 양양문화제

양양문화제는?

양양문화제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례행사와 각종 민속놀이에 온 군민이 참여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과 예향(藝鄕)의 맥을 이어가는 뜻 깊은 문화행사이다. 양양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1979년 제1회 현산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지역 대표적 전통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양문화제의 특징

양양문화제에는 양양의 역사적 특징이 담겨있다. 양양지역은 고려 초에 양주성을 축성하여 향토수호의 기지로 삼았고, 고려 중엽에는 거란병의 침입을 대파하여 양주방어사를 설치하였다. 조선 성종 때에는 조산에 대포수군만호영을 설치해 영동지방의 해상방어까지 맡은 군사요충지가 되었다.
구한말 의병 항쟁을 비롯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은 가장 맹렬한 구국 항쟁이었으며, 8 · 15 해방 이후에는 반공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6 · 25한국전쟁 때에는 국군 7개 사단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양양문화제에는 이러한 선사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향토문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군 성황제를 비롯하여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신석기인 가장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만호 행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전 및 영신 행렬이 있다.

오늘날의 양양문화제가 있기까지

우리 고장은 한반도 중동부의 변방으로 고려 목종 10년(1007년) 양주성을 축성해 장군성황제를 봄, 가을로 지냈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매년 5월 5일 단오절을 기하여 장군성황신을 수호신으로 성황제를 지내고, 굿을 성대하게 하고, 제주는 고치물(서문리 양지마을 샘터)을 사용하였으며 샘터에는 항상 경비병 2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성황제가 철폐되었으나 은밀히 지내오다가 1920년부터 단양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단오절을 기하여 5, 6일씩 별신굿을 하고 관동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민속행사를 열어 영동 및 관동지방의 명실상부한 민속 행사로 개최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38이북의 북한치하에 들게 되면서 성황제는 은밀히 지내오다 1964년 다시 마을 제(祭)로 소규모 성황 굿이 전승되었다. 1968년부터는 군민들의 성미(誠米)(신불에게 바치는 쌀)로 성황제를 단오에 지내오다가 1979년 현산문화제위원회를 구성해 제1회 현산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회부터 제4회 현산문화제는 기미만세 운동일인 3월 1일로 정하여 개최하였고, 1983년 제5회부터 4월 4일로 변경하여 제11회까지 거행하여 오다가 제12회부터는 단오절을 전후하여 일자를 정하여 개최했다.

기존의 현산문화제를 양양문화제로 명칭 변경

현산문화제의 현산(峴山)이라는 명칭이 양양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2013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13년 8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 수렴을 한 결과 발표자들이 한결같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양양문화제위원회는 2016년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양양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8회 양양문화제는 6월에 개최하던 일정을 6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올해만 9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서면 → 대청봉면으로 명칭 변경 추진
브랜드 네이밍으로 자긍심 고취

8월16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례 개정 후 공부 정리 등 후속조치

우리군이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서면 지역에서는 '서면'이라는 명칭이 양양군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단순한 방위 표시만의 명칭이라서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에 위치하여 서면을 대표하는 지역자원인 '대청봉'이 명실상부한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으며, 지난해 10월 서면주민자치위원회가 대청봉면으로의 명칭 변경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서면 주민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대토론회를 가졌고, 올해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서면 주민들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상 1,586세대 중 877세대가 참여해 75%가 명칭변경에 찬성했으며 이 중 568세대가 대청봉면으로의 변경을 원하고 나머지 86세대는 남설악면 등 기타 명칭으로 변경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군은 대청봉면으로의 명칭 변경이 군 이미지 향상과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서면'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군은 조례 공포 후 자치법규와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등기 등 16개 분야 공부를 정리하고 각종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안내하는 등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670-2221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신청 부동의 결정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 사업계획, 마사회 모집조건에 부적합
폭 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 후 합리적 · 실리적 결정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 마무리하고 현안사업 해결에 역량 집중

우리군이 민간사업자(킹스아일랜드)로부터 제출된 마권 장외발매소 신청 동의요청 건에 대해 7월 23일 부동의 결정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7월 14일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토지 용도지역이어야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 주체인 마사회에 유치 신청을 하려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동의가 필요하다.
마권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2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3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마사회에서는 나머지 2개소에 대해 수도권(소형) 1개소, 일반장외발매소1개소를 각각 신설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모집 공고했다.
이번 모집공고에 의하면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토지소유권과 자기자본(총공사비의 3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토지 권리위임만을 받아 신청요건에 부적합하고, 최근 선정에서 탈락한 곳의 예를보면 상주인구 60만명을 마사회 내부방침으로 삼고 있어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군은 찬반에 대한 지역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청자격 기준에도 미달되어 사업선정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주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사회단체장 및 주변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신청요건 충족여부, 사업선정 가능성 등을 마사회와 2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정했다.
그 동안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서는 장외발매소를 오락, 스포츠, 문화 · 예술적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심 외곽에 공원형 장외발매소를 추진했다.
이에 군은 침체된 낙산도립공원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낙산지역에 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했으나 낙산도립공원이 폐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형 · 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삭제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변경 시행함에 따라 설치가 어렵게 되어 추진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가 손양면 하양혈리 산5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치여부를 재검토하게 됐다.
우리군은 그 동안 장외발매소 유치를 두고 찬반논란이 있어왔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고 오색삭도,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대비한 현안 해결에 군정역량을 결집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군정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전략사업과 전략기업담당 670-2123

소규모 군유지 전수조사 완료, 단계별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으로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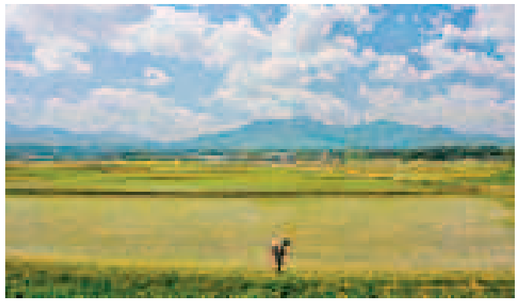
소규모 군유지 168필지(140천㎡), 매각 · 정리 후 대체재산 조성

우리군이 소규모 군유지를 전수조사해 매각 · 정리 대상을 확정하는 한편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해 대규모 투자유치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 나간다.
군은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군유지가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어 불필요한 군유지를 매각하고, 군유지 집단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군유지 전체 11,831필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공용지와 개발가능지 및 예정지(도심권, 해안권 등), 산악지 등을 제외한 매각 필요성이 있는 토지 413필지(740천㎡)에 대해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하천예정지, 경사면, 늪 등 매각불능지역과 지적 불일치 지역을 제외하는 등 매각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리가 비능률적이고 개발가치가 낮은 소규모 군유지 168필지(140천㎡)를 최종 매각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토지형태나 위치, 입지조건, 주민생활과의 연접실태 등을 고려하여 40필지(38,993㎡)를 금년 안에 우선 매각하고, 측량, 대부기한만료, 점유물 정리 등 매각에 앞서 선행조치가 필요한 토지 128필지(101,277㎡)에 대해서는 선행조치 완료 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유지 매각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전액 대체재산 조성비용으로 활용해 개발 잠재력이 높고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지역, 각종 지역개발 사업대상 토지 등을 대체재산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설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급증하고 있는 투자유치 및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투자유치를 촉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전략사업과 전략기반담당 670-2287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203ha 변경 또는 해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받아 6.30일자로 고시 군 관리계획에 반영, 용도지역에 따라 다양한 행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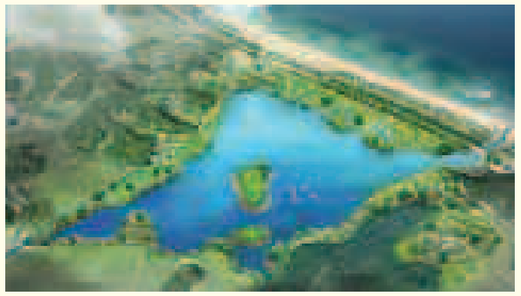


양양군이 최근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 및 소득구조 전환을 위해 203.98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했다.
이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및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만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를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군은 203.98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해 지난 6월 30일자로 승인받았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113.16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으며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90.82ha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농업진흥구역내 81필지 44,507㎡도 해제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 해제된 곳은 도로 · 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의 자투리 땅이 됐거나 도시 지역(녹지) 내 경지로 정리되지 않은 곳 등 농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아진 지역들이다.
군은 이번 해제 또는 변경된 농업진흥지역을 현재 추진 중인 '양양군 군 관리계획 정비'에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새롭게 결정받는 용도지역에 따라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기존보다 다양한 행위가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허가민원과 농지개발행위담당 670-2280

현남면 매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7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백로 · 왜가리 번식지로 알려진 매호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매호의 경우 7번국도 건설과 농경지 확충, 상부의 토사 유입 등으로 호소수면의 50%가 줄어들어 원형훼손이 심각하고, 상류지역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농약, 비료 등 오염물질과 함께 해수의 유통이 정체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남면 광진리와 남애리, 전포매리 일원 336,637㎡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생태복원사업에 들어갔다.
2018년까지 국도비 50억원을 포함, 총 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습지복원 및 하중도 93,450㎡, 생태공원 및 탐방로 53,152㎡, 갈대 및 논습지 26,748㎡ 등을 조성한다.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 48,129㎡를 매입할 방침이다.
습지복원지구는 물새의 휴식 및 은신, 섭식을 위한 공간으로 기존의 농경지를 수질정화습지로 조성해 개방수면을 확대하고, 하중도와 여울형 낙차공, 자연석 호안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생태공원지구는 천이를 이용한 친환경 휴게공간으로 기존의 보를 철거하고, 자동차쉼터와 산책로, 목교,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해 어류와 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와 환경부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이번 용역을 오는 11월까지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환경관리과 환경기획담당 033)670-2180

송암 · 연창 ·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도시공간 확장 및 지역 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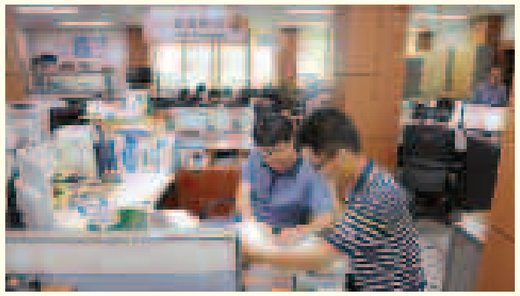
양양읍 송암 · 연창 · 청곡리 일대 32만㎡ 대상 타당성 검토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예정

우리군이 구 도심으로 한정된 시내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및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양양읍 기존 시가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양양읍 송암 · 연창 · 청곡지구로 군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개발대상은 양양읍 송암리, 연창리, 청곡리 일대 32만㎡부지로 이 지역은 7번 국도와 연접해 있고 44번 국도 진출입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연어가 회귀하는 남대천과 가까이 있어 기본환경과 경관도 뛰어나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토지이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시행기간,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면적과 방향, 사업추진 방식 등 구체적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 : 전략사업과 전략기획담당 033)670-2123

원가분석 등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상반기 4억원 예산 절감

2010년 계약심사제 도입 후 총 49억 예산 절감 성과



우리군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만 3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계약부서에 시설직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해 왔다.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부서에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정밀한 원가분석과 함께 시장가격 조사, 적절한 공법적용 여부 등을 심사해 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산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사업 3천만원, 물품의 제조 · 구매는 2천만원 이상이다.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26건에 2억 5,150만원, 용역 27건에 1억 4,220만원, 물품 7건에 130만원으로 총 60건(사업비 114억 2,800만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3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켰다.
계약심사제를 처음 시행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01건의 공사 · 용역 · 물품 사업비를 조정해 48억 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군은 절감된 예산을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로 계약심사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세무회계과 계약관리담당 033)670-2142

심미아파트 9월부터 상수도 공급 500여 세대, 15년간 지하수 사용

2000년 건축 시 사업자가 미 설치 지난 7월 13일 상수도원인자부담 협약 체결

지난 2000년 아파트 신축 당시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현북면 중광정리 심미아파트 495세대에 오는 9월부터 상수도가 공급된다.
심미아파트는 건축 당시 건축주가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준공, 입주를 시작해 현재 495세대 2천여명의 주민들이 1일 800여 톤의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위생.수질 면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국도변에 위치한 심미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조대 사거리부터 7번 국도를 따라 배수관로 300m 매설해야 된다. 이 공사에는 1억 5,000만원의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소요되며, 그동안 상수도 공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비 문제 등으로 미뤄져 왔다.
그러던 중, 우리군이 현북면 상광정리, 기사문리 등 하수관로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하수관로 시설을 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함께 매설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 · 설득시키면서 1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게 됐다.
이로써 군은 5,000만원을 투입해 7번 국도부터 심미아파트 간 300m의 배수관로 공사를 9월말까지 준공한 뒤, 입주자들이 1차분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급수 신청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상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33)670-2521

사진으로 보는 7月 양양의 이모저모

지역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양성합니다

우리군 여성새일센터는 지난 6월 29일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새일센터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을 양성할 것을 다짐했다.

양양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44차 안전점검의 날 지자체 합동캠페인이 7월 4일 양양전통시장 일원에서 군청, 양양양수발전소,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됐다.

깨끗한 서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현남면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0여명은 서핑포인트로 각광받고 있는 동산해변부터 죽도해변까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성공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용왕님께 비나이다

양양 해수욕장 21개소가 일제히 개장하면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제가 7월 8일 낙산해변에서 개최됐다.

농아인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었어요

(사)도농아인협회는 7월 7일부터 이틀간 양양에서 2016 강원도 농아인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도내 17개 지부 30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어울림 마당과 추억마당의 시간을 함께 했다.

양양지역 직장 및 클럽대항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제13회 양양군체육회장기 직장 및 클럽대항 축구대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이틀간 양양공항구장에서 개최됐다. 총 18개 축구팀이 참가한 가운데 직장팀에서는 양양공항팀이, 클럽팀에서는 청년부 하나클럽, 장년부 설송클럽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건강통장 만들기, 나날이 인기가 높아져요

우리군보건소가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통장만들기 강좌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홀수달은 고혈압교실, 짝수달은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돼 참여자 만족도가 높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도자기 솜씨를 뽐냈어요

서면 오색1리 농촌건강장수마을에서 7월 22일 어르신 도자기발표회를 가졌다. 어르신들은 동아리 학습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배운 풍물놀이를 선보이고, 도자기작품 100여점을 전시하여 그간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서울에서 송이 · 연어축제 홍보하고 왔어요

양양군 축제위원회와 군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춘천 등지에서 여름해변 피서객 유치와 송이.연어축제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으로 보는 7月 양양의 이모저모

양양에도 포켓몬이 나타났어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GO)'가 양양지역에서도 가능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우리군은 포켓몬고 게임 관광객 유치를 위해 7월 16일부터 10일간 포켓몬고 특별이벤트를 실시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하늘소리'가 상 받고 왔어요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소속 동아리 '하늘소리'가 7월 21일 횡성군에서 개최된 제9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사물놀이 동아리인 하늘소리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직업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연습해 모범이 되고 있다.

일본 롯카쇼촌 교류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의 청소년 민박 교류단 환영식이 7월 23일 개최됐다. 일본 청소년 12명은 3박 4일간 우리군 교류 가정에서 민박하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송천떡마을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다.

양양군의회

양양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제7대 양양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의장에 이기용 의원, 부의장에 고제철 의원을 선출했다. 이기용 의장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양양군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조례안 9건 등 심의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이기용)는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16일간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회기에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201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조례안 9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번에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7월 7일부터 3일간 현남면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총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원들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예산과 인력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실시

7월 18일부터 3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서 **고제철 부의장**은 2016년도 유기질비료가 일부 미등록 농업인에게 재배분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홍규 의원은 광진해변 인구방파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모래 유실 등 침식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오한석 의원은 민선 6기 공약에 대한 이행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향후 공약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중 의원은 45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양양시장 다목적광장이 오히려 외지 관광객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당부했다.
진종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개혁 과제에 따른 수산항 지정해제와 관련해 2019년까지 250억원의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수산항 기능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닌지 대책을 질문했다.
이영자 의원은 한우 2만두 육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육두수에 얽매이지 말고 양질의 쇠고기 생산으로 사육농가 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하는 등 군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수박 향 밴 양양 남대천의
수중군자(水中君子) 은어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이야기 할 때, 절대 논하지 않을 수 없는 특산물이 있다. 하나는 땅의 것으로 채소류 가운데 으뜸이며 신선의 품격이라 하여 채중선품(菜中仙品)이라 일컫는 송이버섯이고, 둘째로는 지구의 반 바퀴가 조금 못되는 거리의 제 고향 남대천을 찾아 거슬러 올라오는 양양의 연어이다. 그리고 옛 부터 수중군자(水中君子) 혹은, 청류(淸流)의 귀공자로 불리는 은어이다. 이만한 품격의 애칭답게 은어는 양양의 하천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중 가장 기품이 있는 품새와 맛을 지녀, 이 맘 때쯤이면 탐식을 하려는 낚시꾼들과 미식가들을 애닳게 하는 여인의 그리움처럼 양양을 대표하고 있는 민물고기이다.

천리 길 궁궐에 진상했던 양양 남대천 은어

조선시대의 양양 남대천 은어는 고성, 간성, 강릉, 삼척도호부의 은어와 함께 건은어(乾銀魚), 생은어(生銀魚)라는 이름으로 왕대비전, 혜경궁, 중궁전, 세자궁에 진상하였는데, 이는 선대인들이 월별로 일품일미(一品一味)를 즐겨 먹고자 정해 놓은 품목인 '월령천신품목'에도 올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춘관통고, 공선정례에 양양의 은어를 천리길 밖의 왕궁까지 진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 양양의 은어는 양양 사람들이 살아 온 삶의 질곡을 이야기 하듯이 나직하게 바다로 흐르는 남대천이 품고 있는 양양의 보물임은 틀림없다. 은광어(銀光魚), 은구어(銀口魚)라고도 불리는 은어는 본래의 습성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연어에 대하여서 만큼은 매우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습성을 지녀, 겉모습에서 표현되고, 느껴지는 '수중군자(水中君子)'라는 품위와는 전혀 다른, 이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은어에서 '맑은 수박 향이 난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청정 1급수에서 이끼류만 뜯어 먹는 은어의 식성에 의한 탓이 아닐까 싶다. 입맛에서 느껴 질 수박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수박 향 가득 배어 있을 양양의 여름 은어가 지금쯤, 남대천에서 군자(君子)의 품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맛 또한 궁금해지는데, 40년 전 양양 사람들이 은어를 이용하여 특산물처럼 팔았던 음식 중에서 30시간 이상을 연탄불에 구워 팔았다던 '연탄불 훈제'가 있었다.

연탄불에 구워먹던 양양의 특산 먹거리 '연탄불 훈제은어'

양양에서 은어를 이용하여 대중음식으로 상품화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40년 전인, 1970년대 중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당시, 밥 속에 은어를 통째로 머리를 박아 넣고, 밥이 다 되면 꼬리를 잡고 살을 훑어내어 뼈만 추려낸 뒤에 은어살과 밥을 양념장에 비벼 먹던 '은어밥'이 대표적인 식당 메뉴로 은어 소금구이, 은어회, 은어튀김, 호박은어조림, 연탄불 훈제은어를 양양의 별미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지금은 사라진 '연탄불 훈제은어'는 당시, 양양을 대표하던 최고의 특산물이자, 별미 음식이였다. 은어를 철사 줄에 거꾸로 매달듯이 꿰어, 하루 나 이틀 동안 품과 시간을 들여 연탄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만들어 팔던 양양 고유의 토속음식이였다. 기름기가 배어 나오는 은어를 손끝으로 눌러가며 짜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은어를 연탄불에 굽는 것이 아니라, 말리듯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 이 과정을 거쳐야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지고, 은어 살맛은 더없이 담백해지고, 쫄깃한 맛의 은어훈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훈제은어는 예전 버스승강장이 있었던 지금의 산림조합 앞에서 서너 명씩 나와 연탄불 화덕을 차려 놓고 훈제연어를 팔았다고 한다. 특히, 외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양양의 특산 먹거리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양양 맛있는 토요시장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양양전통시장 EQ체험

"아빠랑 손잡고 시장가면 상품권 준대요~!!
저 혼자 가도 안되구요. 엄마 손잡고 가도 안된대요."
양양 토요시장에서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상상력시장을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아빠와 함께 장보기 체험'에 참여하면 아빠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하여 시장 장보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엄마 손잡고 가는 것이라는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감성톡톡 EQ(감성지수) 체험'은 아빠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무료 EQ 체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시장상가 2층 연애공원에서 곤충만들기, 냅킨아트, 도자기인형 색칠하기 등 20여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EQ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장에서 경험하는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연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 양양전통시장 사진 콘테스트

- 접수기한 : 2016. 10월말까지 (11월중 시상)
- 참가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관당 5점 이상 출품)
- 사진주제 : 양양전통시장의 감춰진 모습,
  시장에서 어린이들의 즐거운 모습
- 시 상 : 상장과 부상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10만원 상당의 체육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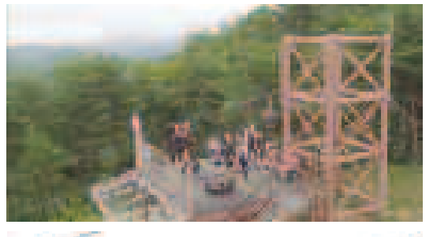
레포츠의 영역을 넓힌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_하늘나르기와 숲속기차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짚트랙이 하늘나르기 양양이란 이름으로 7월 8일 다시 문을 열었다.
탁 트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수십 년 된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산 위를 날아보는 경험은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준다.
짚트랙이 부담스럽다면 또 다른 재미 숲속기차를 권해본다.

스트레스는 하늘에 던져주고 오세요

양양군의 산림휴양 체험시설인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 하늘나르기와 숲속기차가 7월 8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면서 양양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영역이 넓어졌다. 지난 2013년 개설된 휴양림 내 짚트랙시설은 와이어를 이용해 휴양림 최정상부에서 하부 관리사무소까지 580m 구간을 비행하는 2개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탁운영을 맡은 ㈜디아이는 하네스 및 트롤리를 구입해 기존의 앉아서 타는 방식에서 몸체 회전이 가능한 익스트림 방식으로 전환해 이용객들의 짜릿함을 더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운영을 시작한 숲속기차(모노레일)는 가파른 숲속을 오르내리며 산림욕의 개운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하늘나르기(짚라인)를 이용하려면 예전에는 정상부까지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지만 숲속기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이용객들의 수고로움도 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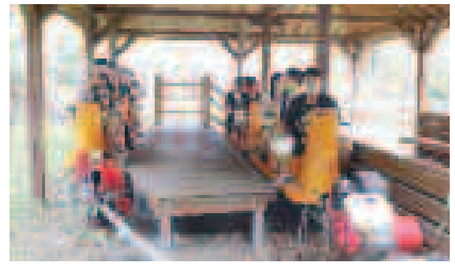


보는 것과 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몇몇 겁이 많은 이용객들은 안전장치를 채울 때부터 걱정이 한가득이다. 반면 옆에서 같이 타준다며 호기롭게 출발하는 이용객 또한 막상 출발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가 들린다. '꺄악~'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나무 위를 날아서 내려오면 스트레스는 하늘 위에 날려버리고 온 듯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무사히 땅에 도착하고 나면 하늘나르기 수료증을 주니 추억의 한 장으로 간직해보자.

휴양림 내 숙박시설도 인기 만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 객실 10개와 독채 형태의 숲속의 집 8동은 여름 성수기인 8월 20일까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휴양림 안에서 목재체험, 백두대간 생태교육, 구탄봉 전망대로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도 인기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제 레포츠 체험이 추가되었고, 앞으로 자생식물원 조성으로 볼거리가 더해지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산림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모습을 기대해본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위　　치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107-61
운영시간 : 10시~18시 (매주 화요일 휴무)
예약문의 : 033) 673-2468 / www.di-lepo.com

시설이용요금 (성수기 7월~8월)

구 분		금 액	
		하늘나르기 + 숲속기차	숲속기차
개인 1회		30,000원	7,000원
단체할인	10인 이상	27,000원	6,000원
	30인 이상	24,000원	5,000원
지역주민 할인		평일 50%, 주말 30%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 할인		성수기 10%, 비수기 20%	
양양군 내 군인할인		20%	
재탑승 할인(탑승 후 2일내)		5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50%	

군민 모두 함께 배우는 중국어 한마디 ④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한다면 양양전통시장이 필수 관광코스가 되겠죠?
중국관광객이 무언가를 묻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해보세요~

1. 你好吗？ nǐ hǎo ma?
   니 하오 마? 잘 지내세요?

2. 我很好，你呢？ wǒ hěn hǎo, nǐ ne？
   워 헌 하오, 니 너? 전 잘 지내요, 당신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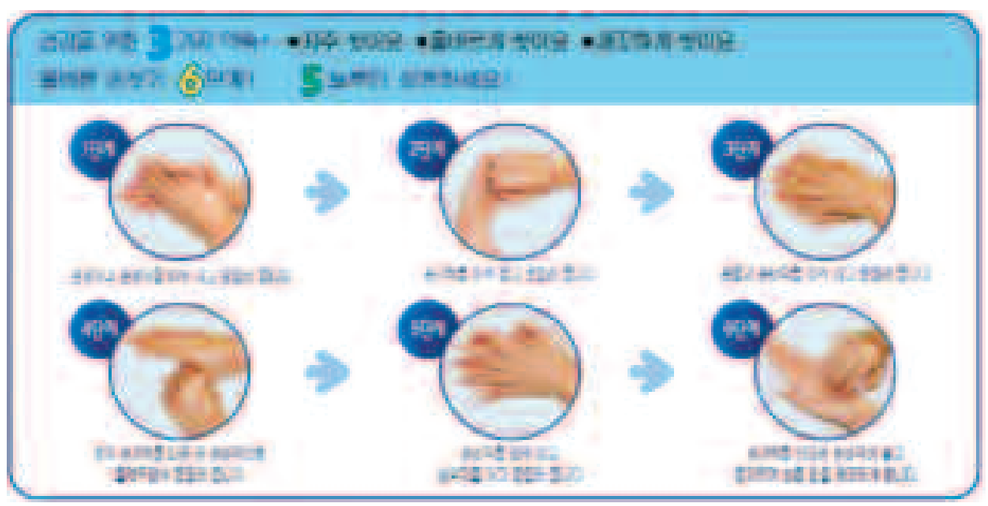
3. 我也很好. wǒ yě hěn hǎo.
   워 예 헌 하오. 저도 잘 지내요.

* 단어
很 hěn 매우, 아주
我 wǒ 나
呢 ne …는요?(의문문을 만드는 조사)
也 yě 역시, …도

你好吗？는 아는 사람 간에 안부를 묻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呢? 앞에서 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신하여 간단히 묻는 단어이다.
즉, 你呢?는 "당신은(잘 지내시나)요?"라는 표현이다.

올바른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하기

대부분의 감염병은 코나 입으로 감염되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갖다 대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 주기만 해도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기에 건강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합시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7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현남면 화상천로 608-11	1명	간호사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1명	요양보호사	1일근무2일휴무	월153만원
가온클린앤클리어	속초시 한화리조트/속초시 라마다호텔	20명	룸메이드	09:00~18:00 (주5일)	1일 6만원
㈜교원 스위트호텔 낙산	양양읍 해맞이길 84	1명	룸메이드	08:30~17:30 (한달근무)	1일 7만원
㈜월드팜	양양읍 거마천로	2명	단순노무	08:00~17:00 (주6일)	1일 5만원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양읍 거마천로 카톨릭관동대학교	1명	영양사	09:00~18:00 (주5일)	월161만원
양양환경용역	강현면 진미로 15-17	1명	운전원	07:30~18:00 (주6일)	월170만원
대정지엠피	손양면 공항로 230 골든비치	1명	코스관리직	07:00~18:00 (주6일)	연2,100만원
나노인스텍	양양읍 포월새말길 포월농공단지	2명	플라스틱 제조	08:30~18:30 (주5일)	월150만원
		1명	영업직	08:30~18:30 (주5일)	연1,800만원
해송케이엔에스	양양읍 포월새말길 포월농공단지	1명	배송 및 자재관리원	09:00~18:00 (주5일)	월160만원
한라산업개발(주)	양양읍 되넘이길 80 환경지원센터	2명	소각로조작원	4조3교대	연2,285만원
강원송이산 영농조합법인	양양읍 포월새말길 포월농공단지	1명	생산직	09:00~18:00 (주5일)	1일 5만원
북청산업 영어조합법인	양양읍 포월새말길 포월농공단지	1명	Haccp 품질관리원	09:00~18:00 (주5일)	월170만원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7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 FAX. 033)670-2456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농공단지구내식당	양양읍 포월새말길 61-1	1명	주방보조원	09:00~16:30	시급 6,030원
남희네식당	양양읍 남문8길 4	1명	홀서빙	11:00~14:00 / 18:00~22:00	시급 6,030원
(주)디아이	양양읍 남대천로 산29-41	1명	안내 및 계산원	10:00~18:00	월급 127만원
강원송이산 영농조합법인	양양읍 포월새말길 257-1	1명	가공식품 제조 및 포장원	09:00~18:00	일급 5만원
그린비치펜션	강현면 뒷나루2길 61-14	1명	룸메이드	09:00~17:00	월급 150만원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양양군지부	양양읍 남문5길	1	수금원	13:30~17:30	시급 6,030
양양펜션들꽃내음	서면 미천골길 (미천골자연휴양림내)	2	룸메이드	10:00~15:00	월급150만원
세영실업	포월농공단지내	2	세탁및다림질원	08:30~17:30	월급140만원
설악산밀봉원	서면 안터길	1	꿀포장원	시간협의	일급6만원
모정의집	양양군 노루골길	1	세탁및다림질원	09:00~17:00	월급130만원
		1	요양보호사	09:00~18:00	월급140만원
양양국제공항호텔	손양면 동해대로	1	양식조리사	09:00~18:00	연봉280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6년 7월 18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군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살림살이 운영방향 등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6. 7. 7 ~ 8. 6(1개월간)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7. 31일까지) : 읍면 배포
□ **조사대상 :** 누구나 참여가능
□ **조사항목 :** 20개 항목
–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기재
– 군 재정 운영방향 및 개선의견 수렴
□ **결과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시 설문결과 반영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합니다.

□ **납부기간 :** 2016. 8. 16 ~ 8. 31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세 율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50,000원
법 인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현금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 ☎033-670-2786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제도 안내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 **대 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 중인 장애인 기업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보훈처가 발급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발급받은 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기관 :** 시중은행

〈햇살론〉

□ **대 상 :** 저신용, 저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대출기관 :**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 **문 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033-638-9780

보건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신 전 검사 안내

□ **검사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기 여성
□ **검사가능일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일
– 격주 운영 / 09:30 ~ 14:30
– 8월 10일, 8월 24일, 9월 7일, 9월 21일
□ **검사항목 :** 풍진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갑상선기능검사, A형간염검사, 요소질소검사, 난소암검사, 초음파검사
□ **문 의 :** 양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670-2533

사실상 소멸 · 멸실된 차량 일제정리 안내

멸실 · 도난 등으로 인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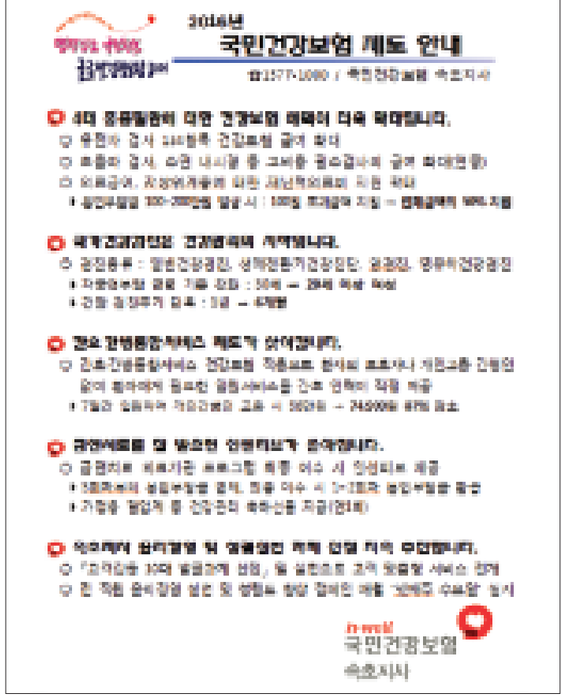
□ **기 간 :** 2016. 6월부터 연중
□ **신고대상**
–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장기 무단방치 차량
– 폐차장 입고차량, 도난차량, 불법명의차량(대표차)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징수)
☎033-670-2295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4대사회보험 사이트 다운로드
□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1577-1000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하여 신고

양양군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예술단 "어깨동무" 신규 단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6. 8. 1 ~ 8. 26
□ **모집강좌 :** 댄스스포츠, 실버악단, 오카리나, 한국무용, 합창단
□ **모집대상 :** 양양군 거주자로 문화예술단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어르신(만60세 이상)
※ 예술단 활동을 위해서는 복지관 회원 가입 필요(신분증 지참)
□ **활동내용 :** 교육 참여 후 공연활동(지역 축제, 행사 등)
□ **교육장소 :** 양양군노인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 **접수방법 :** 양양군노인복지관 방문 접수
□ **문 의 :** 양양군노인복지관 김윤정 사회복지사 ☎033-673-2685
"예술단 외에도 봉사자 어르신을 항상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멋진 재능을 나눠주세요."



제38회 양양문화제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군민의 신나는

화합의 축제!

2016. 9. 1 ~ 9. 3(3일간) 남대천둔치 및 부대행사장